궁금증 정리사항

1. 금융/재무 입문

\*금융데이터 분석에 결측값에 평균값이나 이전값 등을 넣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회사별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해서 평균치를 넣는 것이 일반적인가?-> 이런 작업이 일반적이다.

무위험 자산(예금, 국채 등)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는 자산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성 채권(bill), 우리나라 cd,3년물 국고채 수익률을 사용해서 분석

-인플레이션 위험 노출

안전 자산(미달러, 금은 등)

-가격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의 수익률의 가능성이 큰 자산.

-달러 매수, 매도에 2%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다만 앱 등으로 수수료 할인이 있다.)

-금,은: 변동성이 높고 20%의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한다.

(금 펀드 등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역사적으로 금/은 가격은 80~90배(현재 120배)

보험

-일반적인 보험에서 납부 보험금의 90~85%를 위험(danger) 보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 경비로 사용된다.

\*보험 지출은 급여의 5%~1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긴 하다.

\*변액보험 수수료가 더 크다(ppt에서는 정기보험 수수료가 크다고 되어 있는데 오류이다.)

위험자산

-주식

-펀드: 수수료가 종류에 따라 연1~2% 정도 발생한다. Fee의 개념

Commition: 일회성 수수료, Fee: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ELS: 차후 설명

-실물자산: high risk & high risk-> risk의 군집성이 강하다

\*Risk의 군집성: 특정 사건 발생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의미인가??

-> 가격의 분산이 특정 사건 발생에 따라서 커진다는 의미이다.

(ex: 특정 자산의 가격의 risk 군집성이 크다 = 특정 사건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변동 크기가 크다.))

1)금과 은은 과거 역사에서 통화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말은 금과 은의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가?

-> 현대에 들어서 금과 은의 자산적, 산업적 의미가 변화하면서 가치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의 수익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취급한다.

★

-기대수익률의 산정

주식요구 수익률

펀드수익률(금융투자협의회 펀드공시)

국채수익률

은행예금(은행연합회, 금융상품한눈에)

bok기준금리(초단기(1일)금리 RP)

2) 변액보험: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운용하여 이에 따른 실적에 따라 보험 납입금이 변하는 보험

정기보험 : 보장 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보험

-주식 분석

기본적 분석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의 비교를 통한 평가: 가치투자

문제점: 내재가치 평가 방식이 워낙 다양하다.

-절대적 평가:

-전통적 방식, 미래 배당금의 현재가치화(DDM), 현재는 거의 안쓴다

- 기업의 현금흐름을 통한 가치 평가 (FCFM)

-상대적 평가

-PER, PBR, PCR, PSR , EV, PDR 등

- 그 외 다양하기에 별도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신다.

\*Top-Down: 경제분석: 경제분석 -> 산업분석 -> 기업분석

기술적 분석

-주가의 이동평균선: 5일 이평의 경우 5일 주식 종가의 단순평균 가격의 추세

(개별 종가의 경우 변동이 크기에 그것을 줄이는 목적으로 활용해서 분석에 활용한다)

-이평선(MA,moving average), 볼린저 밴드,RSI

\*주식의 BETA 추정에서 공분산을 사용하는데 둘 간의 선형관계가 아니여도 사용할 수 있는가??? 삼성전자의 경우 시총이 크기에 어떤 선형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데 시총이 작은 종목의 경우 코스피와의 선형관계가 없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베타 추정에 코스피와의 공분산을 활용하는가???

->공분산 값 자체에 의미가 없을지라도 코스피와의 선형 관계 추정에 의미가 있다.

-주식 가격의 변동 원인: 실적, 추세, 수급

추세: 기술적 분석

실적: 이미 1년전에 주가 반영

수급: 주식에 대한 수요,공급(주식/선물)

-markowitz의 이론 mean-variance 모델& B-L모델: 로봇 어드바이저의 기본 모델

-W.Sharpe의 Market Model: 단일 지수 모형

\*단순회귀식 이용

가정: 증권시장의 수익률 변동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시장 지표 존재

& 개별 증권 수익률과 시장 지표 사이에 단순회귀관계 존재(인과관계)

\*회귀분석: 원인에 따른 결과 분석->

\*상관관계: 원인에 따른 결과와 결과에 따른 원인 관계 -> 선형 관계에 대한 상관계수로 표현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 선형관계의 전제가 참이여야 한다.

\*RM = 시장수익률 = 기준 수익률

\*한계

잔차와 오차의 차이: 오차-> 모집단에서 얻은 회귀식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잔차 -> 표본집단에서 얻은 회귀식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오차(실제 모집단에서 오차를 구하기 어렵기에 잔차를 활용한다.)에 대해서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고 변수간의 선형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성립될 경우에만 단일지수 모형이 의미를 갖는다.

->즉 회귀분석 결과 나온 증권의 수익률이 오차(표본에서 구해진 잔차)에 의해서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가?: 맞다. 변수에서 해당 특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차(실질적으로는 잔차)에서 해당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

-위험의 구분

\*체계적 위험: 베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잔차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

3) 대리인비용: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확증비용: 대리인이 주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비용

감시비용: 주인이 대리인을 감시하는 비용

잔여손실: 확증,감시 비용과 별도로 대리인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 지속적인 배당이 대리인 비용을 감소 시킨다는 의미가 배당 증가나 감시가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확증 및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그런 것인가? 즉 지속적인 배당 규모의 추세가 회사 실적과 연계되어 생각하기 때문인가?: 그렇다.

(배당 증가: 대리인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함

배당 감소: 대리인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함

->결과적으로 확증비용, 감시비용 감소)

4) 배당 신호 이론: 경영진들이 미래 성장 전망에 대한 시장의 신호로 배당을 활용한다는 이론

-> 그렇다면 현재의 이익 수준과 관계없이 미래 성장 전망에만 따른 배당을 진행하는 경우 실제 전망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은가???

5)배당 기업의 특성

수익성 증가

투자 기회 감소(이 투자는 회사의 자본 투자를 생각하면 되는가?)

회사 규모 증가

* 근데 수익성 증가의 경우에는 배당 기업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수익성 증가하는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위해서 배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은가?

맞다. 근데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의 대다수가 배당을 많이 해서 배당 기업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다.

* 배당 회사의 그룹 설정에서 배당을 하는 회사, 이전에 배당을 한 회사로 구분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never paid와 non-payer는 뭔지 모르겠다.

Never paid: 배당 지급 한적도 없는 회사

Non-payer: 배당 결정을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회사.

6) 전환사채 vs 교환사채

전환사채는 신주의 생성, 교환사채는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교환

7) 코코본드(조건부전환증권)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원금을 갚지 않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권 2008 리먼 사태 이후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국제 결제은행에서 코코본드의 자본 인정과 함께 등장

대신 금리는 쎄다

8)메자닌 펀드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형식의 증권인 메자닌 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교환사채(eb))에 투자하는 펀드

9)커버드 본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

-채권의 위험

낮은 이자율

긴 만기

->결국 투자 금액의 회수 기간이 긴 것을 채권의 위험으로 생각한다.

만일 짧은 만기와 높은 이자 vs 긴 만기와 낮은 이자의 채권을 비교할 경우 어느 채권이 위험이 더 큰가??

->duration(듀레이션 개념) 도입

->금액 듀레이션: 수익률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변화의 절대값

잘 안 쓴다. Why: 채권의 원래 가격 대비 변화량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 가격 변화량만 고려하기 때문이다.

->수정듀레이션: 금액 듀레이션을 가격으로 나눠서 상대적인 채권의 가격 변화를 표현한 것

-benchmark 수익률: 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

-유형평균(peer group) 수익률

비슷한 유형의 자산 수익률의 평균 수익률을 의미

부동산 수익률 평가에서 부동산 수익률에 대한 벤치마크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부동산 펀드 수익률을 비교 평가하는 것처럼 명확한 벤치마크 수익률이 없는 자산의 수익률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 수익률이다.

-

10)CBOT: 시카고 상품거래소 주로 곡물에 대한 선물 거래가 이뤄진다.

11) 상관분석 파이썬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데 utf-8은 디코드를 못한다는 에러가 나온다.